

교회소식

-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6월 기도의 십일조 ◎

* 일시 - 7일(월) ~ 9일(수) 새벽 5시 강사 : 고윤설, 오상용, 김종명 목사

[알림]

1. 미래 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특별헌금 - 오늘 주일 예배시

[담임목사 동정]

1. 총회 교회교육 부흥전략 지도자세미나 - 7일(월)~9일(수) / 제주도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박연희 간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송경호
부목사	고윤설	오상용	김종명		윤종명	황덕순	임현성	김수중	임인성
전도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김민준(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용	최영일	윤재룡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안철호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정기조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숲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일예배

1부 / 오전 7:00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례송	성도여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선한 능력으로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구회선 집사(1부) / 이원명 장로(2부) / 송경호 장로(3부)
찬양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성경	행 2:1~4
설교	우리교회의 성도像(1): 날마다 성령 중만한 그리스도인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197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주일오후 성경읽기에배 오후 4:00 (본당)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 찬양: 드림 찬양단 * 기도: 강소라 자매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출 13:17-22 “혼자가 아닙니다.”	* 찬양: 주찬양 찬양단 * 기도: 진재주 집사 * 설교: 오상욱 목사 * 성경: 고후 1-7장 “그리스도의 편지”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기도: 이선희 집사(1부) 최영란b 집사(2부) * 설교: 고윤설 목사 * 성경: 느 9:1-5 “회복 이후”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열왕기하 - 담당 교역자 -	* 찬양: 아이노스 찬양단 *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부	유창웅 집사	안내위원
	2부	송경호 장로	
	3부	윤종명 장로	
주일새벽	금 주		식당봉사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이종규 집사	주차위원
	내 주	이종규 집사	
수요일예배	1부	이자영 집사	차량운행
	2부	박순자a 집사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오전 9:00		
		청년부	오후 2:0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7일)	최정숙 고한례 최영희 장영애
화 (8일)	송정숙
수 (9일)	공종호 조영희
목 (10일)	김종명 김명순
금 (11일)	오상욱 조정옥
토 (12일)	이종욱 송순례
주일 (13일)	정영자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당	시간	장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도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도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이연옥 집사	오전 11~12시	기도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시~10시	본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욱 권사	밤 12시~4시	한나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도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도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6일(주일)	7일(월)	8일(화)	9일(수)	10일(목)	11일(금)	12일(토)
성경	왕상2-왕해	왕하2-4	왕하5-7	왕하8-10	왕하11-13	왕하14-16	왕하17-19

☝ 환우

☞ 1교구

* 이종대 집사(남1-5, 박정임 권사 남편) - 허리디스크 수술 / 신탄진 보훈병원

☞ 3교구

* 김옥진 집사(문화, 백승주 집사 아내) - 팔목골절 수술 / 성모병원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분	내용	기간	사역목표	담당자	
신앙성장 과정	학습·세례 교육	3주	신앙 교육 강화	담당자	
	교리생활공부	1년	1학기: 교리편 2학기: 생활편	담당 목사	
	가정사역학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혜경 사모	
	제자 훈련	제자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구 목사
		사역반	1년	사역자 양육	담당 목사
	목자훈련	매주	목자훈련	각교구 교역자	
	양육 1 단계	5주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당자	
	회복수양회	1박2일	내적치유	담당자	
	양육 2 단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험하기	담당 목사	
	증보기도학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당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당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 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 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역복음화	고윤설 목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주일 1부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6월 행사 안내

* 7일(월)~9일(수) / 기도의 십일조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른 교회생활 안내

1. 주일 2,3,4부(청년)예배는 좌석 30%이내 대면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2. 새벽예배, 주일1부, 주일오후, 수요일예배, 목요일성기도회는 좌석 30%이내 대면으로만 드립니다.
3. 주일학교는 좌석 30%이내 대면예배로만 드립니다.
4.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두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경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은)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울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싘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가야곡중부교회 · 기독교타임즈
- 옥천각계교회 · 총신대학교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대전신학교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동대전중학교
- 두란노아버지학교 · 가양중학교
- 군선교연합회 · 명석고등학교
- 주바라기선교회 · 내륙흥 노인회
- 대전기독교방송 · 가양2동 노인회
- 대전극동방송 · 신도 노인회
- 대전CTS방송 · 더퍼리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성경의 부부(5) :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행18:1~4)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범적인 부부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온다. 이 부부는 텐트를 만들어 파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본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의 텐트사업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였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을 섬기게 하신 것이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동역했는지 살펴보자.

1. 부부가 함께 동역함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는 동역이다.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역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성경에서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올 때 언제나 브리스길라도 함께 나온다. 이 부부의 이름이 모두 6번 나오는데, 모두 부부가 나란히 나오고 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처음 만나 자기 집에 영접하고, 또한 성도들이 모임을 갖도록 자기 집을 개방하고 내어놓았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화목한 부부였으며, 일심동체가 되어 일했음을 보여준다.

2. 목회자와 함께 동역함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부부가 바울을 돕는 일은 고린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바울이 선교를 위해 다시 수리아로 갈 때, 그를 따라 함께 갔다. 그리고 바울의 권유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들을 가리켜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했다.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역자”로 부르는데 서슴치 않았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동역자였다. 사역을 돕는 것은 교회를 돕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사역자와 함께 동역한 부부는, 충성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받을 상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이로써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3. 말씀과 함께 동역함

(25-26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진정한 동역은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능력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에까지 이르게 하고, ‘온전한’ 헌신자가 되게 한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헌신하고, 봉사 해야 한다. 말씀과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일꾼이 없어서 문제다. 직분은 받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일꾼들이 너무나 많다. 부부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일평생 성숙한 헌신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져야 한다.

개인 새벽예배 목상집

11일(금)	찬 322장 왕하 16:10-18	성경읽기 왕하 14-16장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	-------------------------------------	---------------------------------	---------------------

성경 기자의 관점으로 볼 때, 아하스 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앗수르의 양식을 따라 제단을 직접 제작했고, 기존 성전의 기구 위치를 과감히 옮기는가 하면 다양한 제사 제도를 임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제사 제도에 모든 백성이 참여하도록 적극 종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하스가 남다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의 배후에는 새로운 종교 형식을 통해 백성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인 이방 앗수르 왕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전을 이방의 양식으로 더럽힌 아하스 왕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배교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12일(토)	찬 218장 왕하 17:7-18	성경읽기 왕하 17-19장	남은 자가 없으니라
---------------	------------------------------------	---------------------------------	-------------------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들이 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제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마지막 경고마저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정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말로 고발하시면서 그들이 당할 결과는 멸망밖에 없음을 강력히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악과 회개치 않는 모습을 한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말씀을 겸손히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내가 정리해야 할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과 증인(가족이나 믿음의 형제자매) 앞에서 오늘 반드시 내버립니다.

13일(주일)	찬 384장 왕하 20:1-11	성경읽기 왕하 20-22장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	------------------------------------	---------------------------------	------------------------------------

유다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을 이어받지 못하고, 조부 아하스와 악한 왕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을 따릅니다. 히스기야가 부처 버린 산당과 우상을 다시 만들고 일월성신을 숭배하며, 심지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까지 만듭니다. 또한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등 끝없는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의적이고 가증한 므낫세의 범죄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 백성 전체를 죄악에 끌어들이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 므낫세의 말을 따름으로, 그들이 처음에 몰아낸 이방 민족 가나안 사람들보다 결국 더 많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여야 할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나는 므낫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빛을 비추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예물

십일조
 강희주(김종분) 구은정 구회선(박지숙) 권미옥 권소열(김순이) 김덕현(하정순) 김동선(홍근성) 김명순 김미자a 김민준 김선자 김선철(이인자) 김연수 김영미 김영술(최진숙) 김옥진 김용기(정윤옥) 김정임 김종근(이순옥) 김충규(박순자b) 김혜정a(이병진) 남상천(김선희) 노정남(조정옥) 류순례(김병출) 류창선(배영미) 문정신 박봉식(김영숙) 박순병(유승숙,박재상) 박연희 박영만(임형숙) 박은희(황의대) 박정자b 박종보 박종순 백규현(양미숙) 성근영(김옥란a,성종윤) 성봉규(이명선,성백숙) 송순례 순찬호(이영숙b) 안성현(김선미a) 안영세(한혜숙) 안철호(이영숙a) 양길용(윤상덕) 양주선(정태옥) 오연자 유영삼(권민숙) 유창웅(김정식) 유현아 윤동근(신영순) 윤순금 윤재룡(송영희) 이경호(송이순) 이길천(윤석의) 이미자(이정훈) 이본구(길준숙) 이선옥 이숙자 이용정(이윤재) 이인창 이재균(김현진) 이춘권(김연자) 인치경(김영재) 임용식(우현주) 임춘수(이종란a) 장영애 장인순 장지이 전승영(오계숙) 정윤식(손석남) 조국진(김애란) 조규연(서정순b) 조정옥(노광숙,노소담) 진재주(박향숙) 최현주 편봉달(김금화) 하현희 한일민(고은주) 황덕순(김기환) 무명

감사헌금
 강희주 고윤설(박혜란) 구왕성 권미옥 김동선(홍근성) 김민균(민들레) 김상순 김상연 김선희 김영천(남정혜) 김재원(길준순) 김정구(배문숙) 김정예(황진석) 김정임(김왕용) 김태순 김형민(윤혜성) 순찬호(이영숙b) 신윤석(이지혜) 안장현 양명자 오세종(김윤정b) 유은정 유춘성 이덕성(유희숙) 이명선 이미자 이상우(이성희) 이여진 이재균(김현진) 임용룡(양홍순) 전용주(권연옥) 조상용(김혜경) 최국현(이영숙c) 최영란b 최진수 최태호 편봉달(김금화) 하용호(문희정) 한인숙 무명2

선교헌금
 강병우 강희주(김종분,윤상희) 구회선(박지숙) 권미옥(윤석진) 권소열 권영숙 길준숙 김덕현(하정순) 김명순 김미자a 김영준 김용기(정윤옥) 김장식(김미숙) 김정순d 김중환(김종갑) 김충규(박순자b) 김혜자 김혜정a(이병진) 노광숙(조정옥,노정남,노소담) 박명환(김은주) 박봉식(김영숙) 박연희 박영만(임형숙) 박재상(박순병) 박종순(김은혜) 백규현(양미숙) 백승주(김옥진) 성근영(김옥란a) 성봉규(이명선,성백숙) 손석남 송순례 순찬호(이영숙b) 안성현(김선미a,안홍준,안홍민,안시윤) 안영세(한혜숙) 안철호 양갑진 양길용 양주선 양홍순 오연자 우희정 유시후 유창웅(김정식) 유현아 윤동근(신영순) 윤순금 윤재룡(송영희) 이관희 이길천(윤석의,이연주,이승준) 이남운(한도희) 이미자(이정훈) 이본구 이선옥 이숙자 이영학(김성순) 이용정 이윤암 이인창 이재균(김현진) 이춘권(김연자) 인치경(김영재) 임춘수(이종란a) 장인순 전승영(오계숙) 정태옥 조관희(정수진) 진재주(박향숙) 최태호 편봉달(김금화) 하현희 홍근성(김동선)

영상헌금
 권금자 김동선(홍근성) 김예화 김은현(이인옥) 윤종명(전숙인) 이수진b 전용주(권연옥)

부활감사헌금 장인순 **장학헌금** 왕은식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7일(월)	찬 312장 왕하 2:5-14	성경읽기 왕하 2-4장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	---------------------	-----------------	-----------------------------------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것을 직감한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동하는 곳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을 목격합니다. 이후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자, 그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의 갑절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자신의 바람대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물을 쳐서 물을 가르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성령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한 사도들과도 비슷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들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엘리사처럼 겸손하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 임하기를 간구합시다.

8일(화)	찬 27장 왕하 5:9-19	성경읽기 왕하 5-7장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	--------------------	-----------------	---------------------------------

나아만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기세등등하게 엘리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엘리사의 영접 방식과 치유 방식에 분노해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다가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금으로써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가 겸손한 종의 태도와 유일신 신앙고백으로 자신의 인생 방향이 혁명적으로 재정립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엘리사는 교만한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자 그를 어떻게 다루고 낮추었습니까? 첫째,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강대국의 장군을 영접하는 융성한 환대를 기대했으나, 엘리사는 치유의 주체가 선지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 말만 전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나아만은 강의 크기와 맑음에 관심을 두며 치유 의식(주술)을 기대했으나, 엘리사는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따르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적인 순종을 나아만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9일(수)	찬 323장 왕하 10:18-31	성경읽기 왕하 8-10장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
-------	-----------------------	------------------	-----------------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한 예후의 칼끝은 이제 바알 우상 자체를 향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제거했지만,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바알 숭배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예후는 바알 우상이 있는 곳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을 모두 불사르거나 헐어 버리며, 바알 목상이 있던 신당은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인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로써 공식적인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공로를 인정해 왕위가 4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예후에게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결국 불완전한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경우는 없습니까? 내가 청산하지 못한 습관이나 죄를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10일(목)	찬 20장 왕하 12:1-8	성경읽기 왕하 11-13장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	--------------------	-------------------	----------------------------

유다 역사에서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웃시아)와 요담까지 선한 왕의 통치가 100년간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아스에 대해 이중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칭찬하는 동시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부정적으로 기록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산당을 남겨 둬으로써,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는 아달랴 집권 기간에 파손된 성전을 복원할 계획을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사장들이 꽤 오랫동안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성전 수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인생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요아스처럼 “다만”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